

공무원 정원 등 8건 원안 의결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지난 5월 8일 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이날 서성부 의원은 '재난의 예방과 대책마련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로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5월 9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시켰으며,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5월 9일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시켰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시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면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8건의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날 조상진 의원은 '남구, 수돗물 안전 및 보편적 물복지 취약, 개선 시급', 이병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민생경제 동참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23명을 증원하여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다양한 종류의 갈등에 즉각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통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추가하고자 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 별관 건물)(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남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원 활성화 조

례안(원안가결)
-거리공원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패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재난의 예방과 대책마련에 대하여

고 있으며, 고성군과 속초시 주민들은 재난 복구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난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재난의 무서움과 상처에 무더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결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신속·정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조동 및 사후대처의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대비 매뉴얼이 비현실적이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현실성있는 매뉴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발생전, 소방청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지휘작전실'을 신설하고 재난 대응지침을 현실성있게 상황변경하여 전국의 소방인력을 신속하게 집결시켜 대응한 것이 대형산불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 있는 대응 매뉴얼로 재난의 확산을 막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둘째, 충분한 중장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특성상 지역의 구분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재난발생후,

중장비의 확보는 힘들뿐만아니라 재난복구의 골든타임을 노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비의 필요수량을 현실성있게 예상하여 여러 민간업체와의 협약, 봉사장비 확보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전에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난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재난발생시, 피해 주민들이 전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다름아닌 여러분!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재난대응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대응방법에 미흡하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재난관련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 함양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대비에 대한 주민 홍보도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재난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지역을 살피고 대비하여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안전·보편적 물복지 개선 시급

수돗물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최적화된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전체와 우리 남구의 상수도시설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구 주민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는 부산시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은 낙동강 원수를 물금 취수장에서 도수관로(직경 1,350~2,200mm)를 통해 화명정수장에서 고도처리 한후 덕천가압장과 대형 송수관로(직경 1,350~1,800mm)를 통해 가동중 직접 급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 관로계통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수영구 대형 송수관로의 93%가 25년 이상 경과해 노후관으로 관로파손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내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자원공사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1건 이상씩 수도관 파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단수사고와 전국의 단수피해 보상요구 사례입니다. 상수도 파손시 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은 물론 산업체에 대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다음은 부산시 및 남구의 간접급수율과 배수지 시설 구축 현황입니다. 남구의 간접급수율은 부산시 전체 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9%입니다. 만약 남구가 단수되면 주민의 83.1%는 수돗물을 공급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들은 물론 경제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는 1일 5,000톤 이상 배수지 33개소 중에서 문현배수지 1개뿐입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 정전, 수질사고 등 각종 상수도에 대비해 저수하고 있는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상수도 공급 계획량의 12시간 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0여년 전부터 배수지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들도 단수에 대한 불안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배수지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남구 주민의 수돗물 안전과 보편적 물복지 권리 확보를 위해 남구청과 부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첫번째, 지역간 불평등한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반영,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배수지 시설 등 부족한 상수도 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노후화된 상수관로 교체 등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백업기능을 확보하고 제해 및 기후변화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합니다.



박미순 의원



서성부 의원



고선화 의원



김근우 의원

의원 조례 발의

박미순 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서성부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고선화 의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김근우 의원 거리공원 활성화 조례안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원 발의가 이어졌다. 박미순 의원(대표발의) 외 10명의 의원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성부 의원(대표발의) 외 7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패착한 주거환경 제공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했다.

고선화 의원은 6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교통안전 관련 홍보, 교통 지도 및 질서 유지활동 등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

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근우 의원(대표발의) 외 7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원 활성화 조례

안」발의를 통해 거리공원 볼거리 제공, 문화예술인 재능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의 확대를 꾀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14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감안부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관련 남구의회 성명서

“주민안전 위협요소 절대 좌시 못해”



부산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5월 21일 부산항만공사의 감안부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부지로 감안부두를 선정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은 심각로 금할 수 없는 행위로, 특히 인근에는 한국셀슈어,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저유시설 등 휘발성 위험시설들이 이미 밀집되어 화재

및 인명사고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뿐만아니라, 감안부두는 항만기능은 부산 등으로 유통부두화 될 수 있는 지역이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해양클러스터 사업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으로 남구의 미래먹거리 창출 거점임은 부산항만공사가 먼저 인지하고 있기에 더욱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로 부적합한 곳이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산항만공사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 안전과 생존권 확보, 남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입지 선정 및 추진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둘째,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2019. 5. 2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민생경제 동참을



이병준 의원

(용호1)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7대 7의 남구의회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생·경제가 먼저다"라는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포함할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 문 앞으로 배달이 되고, 가격도 온라인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골목상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남구지역의 경제회생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바둥이라도 쳐야 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기도 성남시와 경

북 포항을 대표로 하는 지역상품권, 일명 지역화폐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만 유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동시에 외부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지역경제를 방어해서 순환형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사용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자본의 장점을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남구도 부산 최초로 지역 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5월 임시회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시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소극적인 회의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 무조건 숫자가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표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리당략이 아닌 우리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소신있는 결정으로 부결을 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 그 소신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공개토론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민생경제를 위해 발벗고나서도 쳐보려는 남구청의 의지를 아직도 해보기 전에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주민을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든다는 초심을 가진지 의원들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것을 권고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까.

위에 약 10조원의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된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예견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풀뿌리 행정의 발목잡기, 진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진정 우리 28만 남구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 때 외친 말들이 진실이라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속기록에 남는 공개토론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과반이 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7대 7의 구조로 나타나는 이런 남구의회 의타가은 현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새로운 방법을 같이 꾀하고, 그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살리라고, 꾀 같은 세금을 지출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민생경제 동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대로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표결만을 고집한다면, 남구의회는 우리 남구의 민생경제를 저 버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한 의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010-8877. 이 자리를 통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든다는 초심을 가진지 의원들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것을 권고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까.



서성부 의원

(대연1·4·6)

본 의원은 우리구의 '재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부상자 92명, 이재민 1,797명, 672여명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지난 4월 4일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산불은 도로면 전신주 계폐기에서 발화된 불이 초속 20m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큰 산불로 번지면서 사망 2명, 부상 10명, 대피주민 4,000여명, 산림 1,757ha와 주택 및 시설물 총 916곳을 전소시켰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전 국민에게 재난의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대형 재난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포항 시민들은 지진이후 지역경기 침체와 피해보상 문제 등으로 고통받



조상진 의원

(대연3·5)

남구 수돗물 안전 및 보편적 물복지 취약점에 대한 개선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자원경쟁은 원유가 아니라 물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원유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물은 대체 불가능하고 증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악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먹는 물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맑은 물 원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수장에서 생산된